여열사 竹稚 권애라의 생애 【18】

전란과 독재하의 수난

김시현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서울에 올라와 등원을 했다가 6·25를 만나 연금되고 하는 동안 권애라는 안동의 집에 남아 있었고 선거의 뒷처리 등의 일로 서울에는 미처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가 동란을 겪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25 한국동란이 터지자 미국은 곧 군사원조를 결정했고 국련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제재안이 가결됨에 따라 1950년 7월에 맥아더 원수가 유엔군총사령관이 되어 한국의 전쟁에 개입해 작전을 개시했다. 한국의 이승만대통령정부는 개전 3일 만에 서울을 내주고 수도를 대전으로 옮겼으며 다음달 7월에는 다시 대구로 정부를 옮겼다가 8월에 부산으로 피란하였다. 9월에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하여 서울을 탈환하고 10월에는 국군이 38선을 돌파하여 평양을 점령하였으며 부산으로 피란가 있던 정부가 서울로 환도하였다. 그런데 이때 중공군中共軍이 한국전선에 개입하여 전세가 역전되더니 12월에는 북한에서 피란민이 대거 남하하고 1951년 1월초에는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밀려 정부가 도로 부산으로 내려가는 1·4후퇴가 이루어졌다.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수많은 남하장정南下壯丁이 추위에 굶어죽는 국민방위군國民防衛軍 사건이 터지며, 이러한 1월중에 유엔군이 오산烏山에서 남하를 멈추고 반격을 개시했다. 3월에는 서울이 재탈환되었는데 이 기세로 만주滿洲 지역까지 폭격해 중공군의 증원을 차단하고 한국전을 승리 통일로 끝내려던 확전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이 4월에 전격 해임되어 리지웨이 중장이 부임했다. 전시하에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가 날로 심화되던 중 5월에 이를 보다 못한 이시영李始榮 부통령이 하는 일 없이 국록을 축낸다는 시위소찬尸位素餐을 이유로 사임하여 김성수金性洙가 부통령에 취임했다. 6월에는 소련의 유엔대표가 국련회의에서 한국전쟁의 정전停戰을 제의하더니 7월에는 개성開城에서 유엔측과 공산측 대표가 모여 정전예비회담과 본회담을 열었다. 그리고 이해 1951년 12월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뒷받치는 자유당自由黨이 발족되었다.

해가 바뀌어 1952년 4월에는 부산의 피란 수도에서 이박사의 독재와 틈이 벌어진 장면張勉 국무총리가 사임하고 장택상張澤相이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국회의원 40인이 탄 전용버스가 백주에 육군 헌병대에 납치되고 부산에서는 이른바 정치파동政治波動이 일어나 이대통령의 독재와 재선 집권을 돕기 위한 발췌개헌拔萃改憲이라는 것이 추진되며 백골단白骨團·땃벌대 등의 테러가 정관계를 엄습했다. 이러한 와중의 1952년 5월 10일에 국회의원 김시현은 돌연 민주국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다. 6월 들어 이대통령을 위한 발췌개헌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가운데 25일 부산 충무동 광장에서 6·25사변 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거행하는 도중 이승만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통령 저격을 시도한 전의열단원 유시태柳時泰는 현장에서 체포되고 다음날 6월 26일 국회의원 김시현은 이를 배후조종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이때 김시현이 이승만 대통령을 저격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억측과 가능성이 난무하게 되었다. 김시현 본인은 뒤에 재판 과정의 진술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실정失政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으로 거사한 것이지 정말로 죽이고자 한 것은 아니라 하였다. 이것은 김시현이 기왕에 거사가 실패한 마당에서 극형을 면해 보려는 상투수단이었을 뿐이지 대통령에게 겁을 주려고 그런 모사를 했을 이치는 없는 일이었다. 항간에서는 심지어 경찰이 이대통령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김시현을 사주하여 이런 사건을 일으켜 이를 빌미로 민주국민당을 탄압하고자 연출한 것이라는 유언비어도 나돌았다. 이는 김시현의 돌출발언에서도 연유된 것이어서 물론 신빙성이 없는 낭설이었다. 김시현 연구가들은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시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 임시수도 부산의 피난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과 민주국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제출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되었다. 대통령이 초대로서 초대 헌법에 따라 간접선거로 선출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4년 임기가 끝나기에 이르면서 그 누적된 실정과 부패 및 전란통에 갈수록 흉포해지는 독재로 그가 재선되기는 어렵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2대 대통령의 선거를 그대로 국회에서 간선으로 해서는 재집권이 안되기 때문에 이를 헌법개정을 통해 직선제로 바꾸어서는 아직 민주주의의 경험이 없는 민중을 관권과 경찰력으로 조종하여 투표와 선거에서 쉽게 승리해 영구집권의 길을 열고자 했다. 당시 국회의원은 대다수가 이승만의 독재와 부패·실정에 분노하여 정상적인 투표로 국회에서 그가 재선될 가능성이 희박했다. 반면에 이승만의 무서운 독재와 종신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제도를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고 안심이 안된다는 것이 민주국민당 의원들의 생각이어서 어떻게든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을 관철코자 하였다. 달리 의원내각제라고도 하는 내각책임제가 되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국회의 다수당에서 국무총리와 각료를 차지하여 국무총리와 내각이 전권을 쥐고 책임정치와 행정을 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가능해지고 1인의 독재나 종신집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었다.

국회의원의 구성비를 볼 때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는 자기의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1월에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내게 하였다. 그러자 과연 이승만의 우려대로 이 개헌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그리고 부결에 승복할 이승만 정부가 아니었다. 정부는 이에 그 내용을 조금 고쳐 수정안으로 다시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민주국민당은 이승만의 권력연장을 저지하고 파당의 집권을 위해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4월에 제출해 맞불을 놓았다. 1952년 초에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한 후 이승만은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친위세력을 정부요직에 포진시켰다. 5월 24일이 되어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경남과 전라도 지역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이틀 뒤 26일에는 국회의원 40여명이 타고 있는 국회 통근버스를 납치하여 견인차로 끌고가 헌병대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부 개헌안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골라 국제공산당과 결탁했다는 죄로 구속시켰다. 이것이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의 한 절정이었다.

사실 부산정치파동이란 것은 이때의 한 사건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승만독재의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낸 바의 이 파동은 본디 일련의 사건으로서 광의廣義로 부산정치파동·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안 통과와 2·4파동이라는 것까지 포함하나 협의狹義로 5·29부산정치파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제2차 대통령선거와 제1차 지방의원선거는 전쟁으로 정부가 부산으로 피난중인 상황에서도 예정대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었고 장기집권이 어렵게 된 이승만은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하는 술수를 써, 대통령 선출을 전국민투표의 직선제로 하고 국회를 참의원과 민의원 양원제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시켰다. 그런데 이 안이 1월 국회에서 부결되자 이승만 정권은 관제 데모를 일으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국회의원을 협박했다. 불량 폭력배를 정치깡패로 조직화하여 동원하는

능동춘추에 10년을 연재해온 천착물
한권의 단행본으로 발간

漢字도 우리글

한국어 어쩌면 좋은가
權光旭

서두를 한번 읽기 시작하면 몰랐던 우리 말글의 병을 자각하며 잠재의식의 회오리에 말려든다. 일독을 마치고 거기에서 벗어나노라면 우리 어문의 괴저와 뇌질환으로부터의 출구가 선명히 드러나 보인다.

신국판 403면·값 1,300원·서점에서 구입
도서출판 해돋이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1 우110-044
전화 02) 734-3085·732-9139 / 전송02) 738-8935
전자우편 haedogee@kornet.net

한자를 퇴출하고 박멸한 자리에 영어휘가 파도처럼 밀려들어오며 거개의 우리말 어휘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면서 어법만 따라하느라 왜곡시켜 한국어는 뇌경색에 걸려 빈사상태이다. 영어를 국어화하기 앞서 한자부터 한국어에, 광의의 한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통육효비전正統六爻秘傳

야학노인점복전서

野鶴老人占卜全書

기초편·응용편
전2권

이아평李我平 감정鑑定
야학노인野鶴老人 저著
이문휘李文煇 증산增刪

권오달權五達 태로太爐 역주譯註

011-9598-0852e-mail : kod0852@naver.com
도서출판 小康 발행

부산 서구 동대신동 2가 289-6
전화 051)247-9106 팩스 051-248-2176
값 기초편 10,000· 응용편 15,000원